

문화교류 속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책만들기'

일본 제2회 북스케이프월드 <현대한국의 북디자인전>을 다녀와서

정병규

북디자이너 · 정디자인실 대표

북디자인은 책의 한가운데서, 책을 땀도는 속에서 '느낌'을 얻는다. 거기에 나라 사이의 울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쿄 간다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디자인전시회에서도 그런 '느낌'은 충분했다.

일본 북디자이너 관심 주목

일본도서설계가협회(회장 이타야 시게오)가 주최하고 제지회사인 다케오사가 후원하는 제2회 북스케이프월드에는 지난해 초청국인 미국에 이어 올해 '한국'을 초청했다. <현대한국의 북디자인전>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번 전시회에는 20여명의 국내 북디자이너가 출품한 200여책을 작가별로 선보여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여름께 북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모임인 서울출판디자인클럽(SPC, 회장 정병규)이 중심이 되어 환기미술관에서 가졌던 <출판과 미술>전에 대해 일본도서설계가협회가 깊은 관심을 보였고, 전시작품 중 현대 부분이 도쿄에서 선보이게 된 셈이다.

첫날 전시장은 일본의 편집자·디자이너 관련업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거렸다. 주최측은 회보로 퍼내는 <도서설계> 전체를 <현대한국의 북디자인전>으로 꾸미는 성의를 보여줬다. 일본측의 준비과정은 놀랍도록 철저했고, 교섭에서부터 전시회 기획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진행돼 인상 깊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문화계방 발표 시기와 맞물려 뜻밖의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 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상업적인 면을 넘어서는 '문화'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의 북디자인단체가 협의하여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북디자이너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더욱 문화교류의 의미는 깊었다.

사실 세계는 지금 사이버스페이스와 멀티미디어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시점이다. 아직 우리는 북디자인의 정체성조차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새로운 세계의 흐름 속으로 편입돼가는 시점이어서 이렇게 우리의 책 자체를 새롭게 외국, 일본이라는 거울을 통해 주목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또다른 의미를 띤다. 정보구축의 기본 틀은 활자다. 미디어의 교류 특히 디자인을 통한 양국의 책만들기



· 일본도서설계가협회 회보 <도서설계>에서 특집으로 다룬 <현대한국의 북디자인전>(왼쪽).
· 일본의 편집자·디자이너 등 관련인사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오른쪽).

에 개입된 감성과 미의식적 특성을 교류한 점에서도 이번 전시회는 의미가 깊다. 또한 한글로 만든 책, 책 자체의 물성적인 상징을 극대화시킨 정선된 책들이 출판대국인 일본에서 전시됐다는 점은 상업적인 출판문화 교류를 넘어 책문화 교류의 뜨거운 출발이었다.

'덕'의 세계관 깬 절제된 한국디자인

일본의 그래픽디자이너 스기우라 고헤이 씨(66)는 한국의 북디자인에서 '덕(德)'의 세계관이 깬 유교적 문화를 읽어낸다. 담백한 새처럼, 절제된 모양이 간결미를 보이면서도 생명력이 잠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전람회에 선보인 한국 책들 역시 여백을 고즈넉하게 살리고, 흰색이나 청자색 등 담백한 색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적인 한국의 미의식이 흘러넘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장정이 "와글와글거리는 듯한, 발버둥치며 괴로워하는 장정"이라고 말한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겸손한 생각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일본 책문화의 수준은 상당하며 우리가 배울 점도 많다.

다만 일본의 디자인이 장식적인 경향이 짙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엔 그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세계적인 책만들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주목할 일이다. 종이선택에서부터 인쇄방법, 즉 재료 자체가 디자인 요소로 부각할 수 있도록 '물성적인' 선택에서 변화를 주고 있음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한 일본 역시 서서히 닦쳐온 경제불황으로 책만

들기에서 새로운 기획과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시점에 와 있고, 그 점은 우리와 공통된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책만들기에 있어 반성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양국의 북디자이너들은 많은 자극과 발상을 주고받았다. 2002년 월드컵 개최와 더불어 '한일 출판북디자인전'을 양국에서 번갈아 열어보자는 고무

적인 제안도 있었다.

문화생산은 활자미디어로서 구축된다. 책을 디자인하는 개념에는 이미 '생산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러기에 새로운 생산의 주체로서 디자인에 더욱 주목해야 할 때다. 책을 둘러싼 양국 디자이너들의 뒤섞임 속에서 이 시대 '책만들기'의 새로운 개념은 태동을 시작한 듯싶다. ◆

출판계 소식

한길 북하우스 오픈

도서출판 한길사(대표 김언호)는 지난 16일 강남출판문화센터 2층에 50평 규모의 '한길 북하우스'를 열었다. 한길사는 그동안 발간한 1,400종의 책을 북하우스에 전시하며, 판매도 병행한다.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 첫번째 행사로 오는 24일 '차페크 문학과 체코 맥주의 밤'을 연다. (3446-4811)

대산문화상 수상작 발표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계)는 지난 10일 98년도 대산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수상작은 ▲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소설 <홍어> (김주영), ▲희곡 <돌아서서 떠나라> (이만희), ▲평론 <1990년대 문학의 담론> (조남현) 등. 시상식은 오는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질 예정.

자유경제출판문화상 신청공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기업센터(이사장 송자)는 '제10회 자유경제 출판문화상 도서출품 신청'을 받는다. 97년 12월부터 98년 11월말까지 출간된 도서 중 '자유시장경제 창달 및 한국경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책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우수도서·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2~1천만원 상당을 구입해준다. (3771-0465)

전자출판물 인증제 시행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인증위원장 이기성)는 12월1일부터 전자출판물(게임·영화·음악 등 제외)을 대상으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내용구분, 저작물로서의 요건, 기능요소 등을 심의기준으로 삼아 출판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인증할 예정이다. (722-6486)